

AI에 반도체 입혀 ‘시너지’... “455兆 창출, 선진국 도약”

〈2030년까지〉

2020 희망을 쏘다

(9) AI 후진국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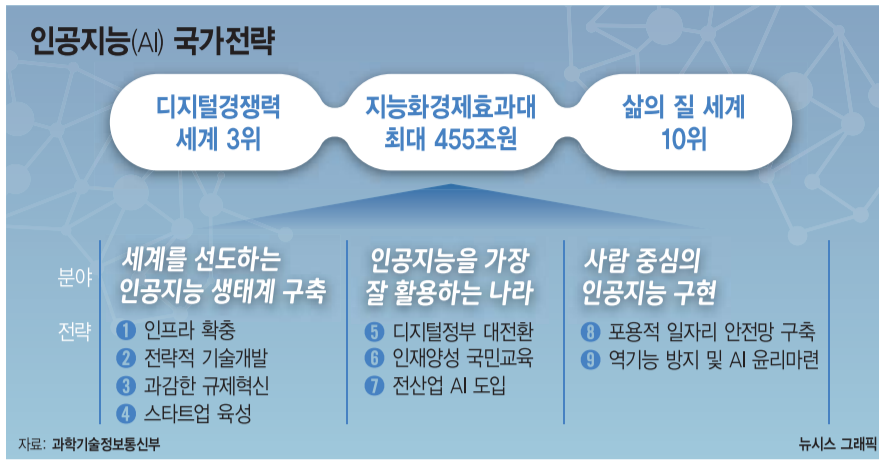
韓 인공지능 준비 아시아 8위 수준 2029까지 ‘AI 반도체’에 1조 투입 반도체 경쟁력 더해 1위 선점 노력

지난해 국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고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인공지능(AI) 강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로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AI 후진국 극복,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구글·아마존 AI 대표 기업들이 포진된 미국은 물론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을 AI 선두기업으로 키워내 AI 선진국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AI 준비지수는 영국 옥스포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센터(IDRC)가 발표한 순위에서 세계 194개국 중 26위, 아시아 중 8위로 꼽힐 정도로 뒤져 있다.

정부의 AI 전략은 우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에서 선두에 올라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AI 선도국과 격차를 해소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제조기



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점을 둔 산업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분야로 2029년까지 AI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1조9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을 통해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론 국내 기업들도 아직 AI 기술력에서 미국, 중국에 뒤져있다. 이번 ‘이세돌 VS 한돌 대국’에서 1승 2패로 패한 이세돌이 “(NHN의) 한돌은 중국의 AI ‘절예’와 비교해 아직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할 정도다. 순위에서도 절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 AI로 꼽히며, 한돌은 국내 최강이지만 세계 3위에 머물고 있다.

국내 통신업체, 포털들은 아직은 후발이지만 AI 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AI 스피커, 코딩로봇 등 기기는 물론 AI와 연동한 스마트홈, 사람처럼 말하는 AI 고객센터 등 서비스를 앞다퉀 내놓았다.

또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생겨난 스타트업, 발빠르게 AI 사업에 진출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도 챗봇, AI 플랫폼, 의료, 법률, 주식투자 등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선보이고 올해 영업을 본격화했다.

AI 챗봇은 이제 롯데시네마의 키오스크에 탑재돼 음성으로 영화 예매는 물론 간식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인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챗봇 등 말벗으로도 진화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흉부 엑스선 검사 영상을 보고 폐암이 의심되는 지 알려주는 AI를 도입했으며, 대장암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로 병기를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AI도 개발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초기암으로 국소 부위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AI를 선보였다.

변호사뿐 아니라 사법부 업무에도 AI 활용이 본격 추진됐다. 법원이 AI를 활용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국내 AI 대표 스타트업인 인텔리온연구소도 계약서 분석 법률 AI인 ‘알파로’를 몇몇 기업에 테스트해 올해부터 법률 AI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데뷔 2019’ 행사에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스1

AI 기업인 이스트소프트는 AI 금융 사업을 위해 지난해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을 설립하고 AI를 통해 펀드를 운용해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AI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용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지난해 AI 사용 사례가 AI 스피커에 그쳤는데, AI 스피커조차 아직 무상 보급이 많아 큰 수익원이 되지 못하고 아직은 성능도 우리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AI 의료 기술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AI 진단은 추진 단계이며, AI 의료의 핵심인 원격진료는 규제 때문에 아예 국내서는 불가능하다.

또 AI의 성능을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공유경제도 주목

지난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는 핵심기

술로 꼽히며 IT 서비스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삼성SDS는 이미 2018년 말 그룹 관계사 IT시스템의 90%를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LG그룹은 2023년까지 계열사 시스템 90%를, SK그룹은 2022년까지 계열사의 주요 IT시스템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전사적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구글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발간한 ‘클라우드 도입: 아태지역 6개국의 도약’ 보고서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5년간 5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IoT,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스타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겠다고 2일 밝혔다.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지

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합격 대상업체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 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월3일 발표한다. 고용허가서는 2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만 130명으로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각각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韓 스타트업, CES서 기술력 뽐낸다

‘교통 트래픽 레이더’ 비트센싱 ‘플랜티 큐브’ 엔싱 등 대거 참가

한국 스타트업들이 오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0에 대거 참석한다. 단순히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혁신성과 기술력, 디자인 등 우수한 전시 제품에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도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엔싱, 비트센싱, 엑소시스템즈 등 한국 스타트업이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엔싱은 팜테크 스타트업으로 IoT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환경에서 양질의 작물을 재배해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엔싱은 ‘플랜티 큐브(Planty Cube)’라는 큐브 형태의 컨테이너에서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관리한다.

비트센싱은 교통 트래픽 레이더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비트센싱의 24㎒ 레이더 센서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해 혁신상을 수상했다. 비트센싱은 트래픽



CES 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엔싱의 ‘플랜티 큐브(Planty Cube)’. /엔싱

레이더를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용 이미지 센서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엑소시스템즈는 근골격 강화 웨어러블 기기로 혁신상을 받았다. 엑소시스템즈의 ‘엑소리랩’을 착용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사용자의 신체정보를 파악하고 전기자극 등으로 개인 맞춤형 재활 운동을 돕는다.

아이콘AI는 아마존의 AI 스피커 알렉사와 연동한 ‘스마트메이크업미러’로 스마트홈 부문 혁신상을 획득했다.

혁신상을 받지 않은 스타트업도 CES에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SOS랩은 자율주행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술은 ‘라이다’를 선보인다. SOS랩의 라이다는 드론 및 자율차의 센서로 개발될 예정이다.

베어로보틱스는 음식을 서빙하는 자율주행 로봇 ‘페니봇’을 선보인다. 페니봇은 뜨겁거나 무거운 물건을 사람이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실리온밸리 약 10여 곳의 식당에서 페니봇이 고객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리베스트는 휘어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 리베스트는 다양한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 고밀도 플렉서블 2차 전지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웨어러블 심박 세동 측정 기기를 내놓은 ‘휴이노’, 환자별 맞춤형 뇌 자극 가이드 소프트웨어의 ‘뉴로핏’, 사용자의 행동 및 위치를 기반으로 혼합된 맞춤 향기를 제공하는 스마트 디퓨저의 ‘피움랩스’, 고양이 자동 화장실의 ‘골골송작곡가’, 손가락 움직임 읽는 ‘핑거센서’를 만드는 ‘퀵소(Qeexo)’ 등 다양한 스타트업이 CES 2020에 참가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인테리어 플랫폼’ 집닥, 거래액 3000억 돌파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 집닥은 인테리어 고객 거래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서비스 론칭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 누적 견적 수는 18만 5000건이다.

지난 2019년 집닥에서 발생한 거래액은 연간 15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7% 증가한 수치다. 월 최고 거래액은 150억원이고, 월 견적 최고치는

8000건으로 집계됐다.

집닥은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시장의 대중화를 목표 시작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이다. 집닥은 지난해에 5월 배우 차승원을 전속모델로 발탁하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신·구축 아파트 대상 쇼룸을 운영하는 등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점도 확장했다.

/배한님 기자